4부 구체적인 지침

죄 죽이기 8편 내 죄는 얼마나 위험한 단계일까 · 치명적인 징후 여섯 가지

4부 9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1)」(116~130쪽)

> ❓ **이 죄, 그냥 평범한 싸움일까 아니면 이미 위험한 단계까지 온 걸까?**

🧭 흐름 한눈에

오웬은 3부의 일반 지침을 마치고 4부의 구체적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9장부터 13장까지는 죄를 직접 죽이기 전에 갖추어야 할 '예비 지침'이고, 그 첫째는 내 욕망에 치명적인 징후가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욕망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죽지 않으므로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웬이 드는 징후는 여섯 가지입니다. 오래 묵어 굳어짐, 마음이 은밀히 죄를 변호함(양심 달래기와 죄에게 자비 베풀기), 미혹에 자주 짐, 형벌이 무서워서만 싸움,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 하나님의 여러 치료에도 살아남음입니다. 그리고 장 끝에서 오웬은 분명히 주의를 줍니다. 이 징후들은 참된 신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그러니 나는 신자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단은 판결문이 아니라 경보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더 자신을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한 처방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진단이 먼저다: 구체적 지침의 첫걸음 (9장)

오웬은 앞에서 다룬 일반 지침에 이어, 죄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실제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 지침을 줍니다. 구체적 지침은 두 부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비 지침과 죄를 죽이는 일 자체에 관한 지침입니다. 9~13장은 앞의 예비 지침에 속하고, 그 첫째가 내 욕망에 치명적인 징후가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명적인 병에 감기약을 먹으면 낫지 않듯이, 치명적인 욕망에는 평범한 방법이 통하지 않고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웬은 이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빗댑니다. 오늘로 옮기면, 3년째 같은 죄로 넘어지는 청년이 “이번엔 진짜 안 해야지”라는 각오만 되풀이한다면 진단 없이 같은 약만 먹고 있는 셈입니다.

1. 9~13장은 죄를 죽이기 전 '예비 지침'
2. 첫 지침: 내 욕망의 위험 징후를 살펴라
3. 치명적 욕망엔 평범한 방법이 안 통한다
4.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맞는다
5.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맞는 처방 찾기

> **마태복음 17:21**
>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어떤 욕망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비유(개역개정은 난외에 둠)
>
> (없음)

> **마가복음 9:29**
> 같은 말씀의 평행 본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
>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 2. 징후 ① 오래 묵어 굳어진 욕망 (9장)

어떤 욕망은 마음속에서 오래 썩어 왔습니다. 힘써 싸우지 않았거나, 그 욕망이 낸 상처를 고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그 욕망은 큰 힘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래된 욕망은 영혼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지성과 양심이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오랜 친구처럼 대하게 됩니다. 오래 산 세입자가 “여긴 이제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서, 이런 상태는 신자에게 있을 수 없는 '죄의 지배'와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로 옮기면, 처음엔 손이 떨리던 일이 이제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아무 감각 없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무감각 자체가 경보입니다.

1. 방치된 상처는 곪고, 곪으면 위험하다
2. 오래된 욕망은 양심과 '친구'가 된다
3. 의식하지 못한 채 욕망이 뜻을 이룬다
4. 죄의 지배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상태
5. 욕망은 저절로 죽지 않는다

> **시편 38:5**
>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오래 방치한 죄가 영혼을 썩게 함
>
>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 **창세기 42:15-16**
> 요셉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함: 익숙해져서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예로 오웬이 짧게 언급
>
>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욕망이라는 것은 저절로 죽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언제나 점점 더 힘을 얻는다.”

둘째 징후는 욕망과 싸우지 않고, 마음이 은밀히 그 욕망을 변호하며 타협해 사는 것입니다. 그 첫째 길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 죄를 죽이는 대신 “그래도 내 영적 상태는 좋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죄와 잘 지내는 것입니다. 오웬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되새기는 일 자체는 성도의 의무이며, 적절한 때에 하면 “은 쟁반에 금 사과” 같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목적입니다. “이 죄를 죽여라”라고 외치는 양심을 조용히 시키려고 은혜의 기억을 꺼낸다면,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감싸려는 흉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이는 길을 피해 다른 증거로 멍에를 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찔린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마음을 달래고 악을 그대로 둔 것이 그 예입니다. 오늘로 옮기면, 새벽까지 SNS로 남을 깎아내리다 찔림이 올 때 “그래도 나 지난 수련회 때 눈물 흘렸잖아, 찬양팀도 하잖아”라며 휴대폰을 덮는 모습입니다. 목마를 때 물 대신 술을 마시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하나님의 평안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는 표가 됩니다.

1.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의무다
2. 문제는 양심을 '달래려는' 목적이다
3. 피로 용서받고 영으로 죽이는 길을 피함
4.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식 위안
5. 하나님의 평안보다 죄를 사랑한다는 표

> **시편 77:6-11**
> 주의 옛 인자하심을 되새김: 경험을 돌아보는 일의 바른 예
>
>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 그의
>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 하나님이
>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 하였나이다 (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 해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 기억하리이다

> **고린도후서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잠언 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 쟁반에 금 사과": 때에 맞는 점검은 유익함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요한복음 8:33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신분의 증거로 찔린 양심을 달랜 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 4. 징후 ②-2 죽여야 할 죄에게 자비 베풀기 (9장)

둘째 길은 내 안에 남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고 진심으로 죽이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그 죄를 사랑하고 깊이 붙잡혀 있다는 표입니다. 나아만은 "다른 건 다 하겠지만 림몬 신전에서 몸을 굽히는 이 일만은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오웬은 이처럼 특정한 죄 하나를 놓지 않겠다고 정해 두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모순되며 위선자의 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술수와 남은 불신앙 때문에 이 속임수에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경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비를 핑계로 죄를 붙들면 육신은 더 대담해지고, 성경의 자비 구절들을 비틀어 자기 변명으로 씁니다. 오늘로 옮기면, 큐티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회사에서 실적 보고를 살짝 부풀리는 일만은 "다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라며 따로 떼어 두는 모습입니다.

1. "이 죄 하나만은 봐주세요"는 위선의 표
2. 신자도 이 속임수에 걸릴 수 있다

4. 자비의 말씀이 변명으로 악용된다

5. 죄에게 베푼 자비는 복음을 빙자한 육신

열왕기하 5:18

나아만의 “이 일만은”: 특정한 죄를 남겨 두려는 마음의 예

>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유다서 1:4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 죄를 봐주는 일의 정체

>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로마서 6:1-2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신자도 경계해야 할 유혹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시편 38:5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남: 이런 상태가 가는 끝

>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 5. 징후 ③ 미혹이 자주 이긴다 (9장)

셋째 징후는 죄의 유혹이 자주 성공해서 의지가 대개 죄의 요구에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오웬이 말하는 '성공'은 겉으로 저지른 죄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돼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더라도 의지가 기꺼이 동의했다면 죄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흔한 변명은 “의도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랬다”입니다. 오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부주의했다면 그 부주의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옮기면, 동기의 승진 소식에 겉으로는 축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망했으면 좋겠다'에 매번 고개를 끄덕이는 상태입니다. 손가락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마음은 이미 졌습니다.

1. 행동하지 않아도 동의했다면 죄가 이긴 것
2. 의지의 동의는 '죄를 잉태한' 상태
3. “나도 모르게”는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
4. 부주의도 하나의 선택이다
5. 뜻밖의 동의는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결과

> ★ 야고보서 1:14-15
>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장성함: 의지의 동의만으로 죄가 이김

📜 6. 징후 ④ 벌이 무서워서만 싸운다 (9장)

넷째 징후는 오직 결과와 형벌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나 지옥이 무서워서만 참는다면, 벌이 없으면 얼마든지 짓겠다는 뜻이고 죄는 이미 의지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다르게 싸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 죄의 가증함, 하나님과의 교제의 귀함을 알기에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요셉은 들킬까 봐서가 아니라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거절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웬은 지옥과 심판이라는 율법의 무기만 남은 싸움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버리고 죄를 억누르는 은혜에만 기대는 것, 곧 율법의 쇠 멍에 아래로 돌아간 것이라고 봅니다. 신자가 죄에게 지배받지 않는 이유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입니다. 오늘로 옮기면, 연인과의 선 넘는 스킨십을 “교회에 소문날까 봐”만으로 버티다가 점점 지쳐 가는 상태입니다.

1. 벌이 없으면 지을 죄라면 이미 진 것
2. 성도는 죄 자체를 미워해서 싸운다
3. 지옥·수치만 남은 싸움은 율법으로 후퇴한 것
4.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5. 복음으로 못 한 일을 율법으로는 못 한다

> **창세기 39:9**
>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랑에서 나온 거절의 모범
>
>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 **고린도후서 5:14**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 복음에서 나오는 동기
>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고린도후서 7:1**
> 약속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약속이 싸움의 근거
>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 **로마서 6:14**
>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죄를 이기는 근거는 은혜
>
>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 7. 징후 ⑤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 (9장)

다섯째 징후는 나를 괴롭히는 욕망이 하나님의 심판적 완고함, 적어도 징계의 벌일 가능성이 클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전 죄나 나태함, 어리석음을 바로잡으시려고 그들을 어떤 욕망의 괴로움 아래 두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라고 탄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이 죄에 빠지기 전의 마음과 행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웬은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지 않은 큰 죄가 있는지, 받은 자비에 감사하지 않았는지, 환난의 목적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세상에 맞추어 살지 않았는지입니다. 하나님은 해묵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새 죄의 괴로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로 옮기면, 요즘 갑자기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데 돌아보니 몇 달째 기도는 끊겼고 예전에 친구에게 한 거짓말은 덮어 둔 채라면, 그 분노는 해묵은 것을 보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자녀도 욕망의 괴로움 아래 두신다
2. 목적은 이전 죄·나태·어리석음을 바로잡기
3. 분별법: 넘어지기 전의 마음과 행실을 살펴라
4. 새 죄 뒤에 해묵은 죄가 있을 수 있다
5. 해당된다면 깨어 하나님을 부르라

> **이사야 63:17**
>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완고함 아래 두심
>
>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 8. 징후 ⑥ 하나님의 여러 치료에도 살아남은 욕망 (9장)

자기 마음의 길로 간 백성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 마음의 악을 짚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곤경을 겪다가 옛 죄를 떠올린 것이 그 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으로 마음을 흔드시고,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끼는 욕망을 정면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욕망에 장악된 마음은 깨달음을 얻고도 다시 돌아가, 말씀이 낸 상처를 욕망이 '치료'해 버리게 둡니다. 오웬은 이런 경고들이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이며,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바로 다음 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를 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로 옮기면, 게으름에 관한 설교에 찔려 “이번 주부터 바꿀게요”라고 적어 놓고 수요일쯤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몇 달째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1. 하나님이 치셔도 자기 길로 가는 상태
2. 섭리·성경 읽기·설교로 죄를 짚으신다
3. 장악당한 마음은 그 동아줄을 끊는다
4. 경고는 진노 이전에 큰 자비다
5.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사야 57:17

치셔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감: 치료를 거부하는 상태

>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 이사야 57:18-19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오웬이 “다음 절”로 가리킨 주권적 은혜의 약속

창세기 42:21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섭리 속에서 옛 죄를 깨닫게 하심

>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9. 주의: 징후는 판결문이 아니라 경보다 (9장)

오웬은 이 여섯 말고도 위험한 징후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욕망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징후를 살피는 일이라고 정리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주의를 덧붙입니다. 이 악들은 참된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이 있다고 “그러니 나도 신자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간음했으니 간음한 나도 다윗 같은 신자라는 말이 되고, 로마서 7장의 어두운 싸움이 내게 있으니 나는 거듭났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도 병에 걸리니 병든 사람은 다 지혜롭다”는 논리, 흉터 있는 미인 이야기를 듣고 흉터 많은 자기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웬은 이런 징후가 있는 사람은 '내가 신자라 해도 가장 비참한 자'로 여기는 편이 안전하고, 평안은 참된 신자의 다른 증거에서 찾으라고 권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신자에게도 이런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오웬의 말은, 징후 하나로 “나는 끝났다”고 스스로 판결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장은 정죄하려고 울리는 사이렌이 아니라 처방으로 이끄는 경보입니다.

1. 위험한 욕망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2. 신자의 흠이 신자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3. “다윗도 넘어졌으니 나도 괜찮다”는 착각
4. 로마서 7장을 자기 위안으로 오용 말라
5. 징후는 판결문이 아니라 처방으로 가는 경보

> **마태복음 17:21**
>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가는 종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정리
>
> (없음)

> **사무엘하 11:2-4**
> 다윗의 간음: 성도의 죄가 내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예
>
>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4]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 로마서 7:18-25**
> 거듭난 사람의 내적 싸움: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단정하지 말라

(★ = 시리즈 전체에서 특별히 표시하는 핵심 구절)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위험 징후를 보고 “나는 가짜 신자야, 끝났어”라고 스스로 판결하기	징후를 경보로 듣고 더 정확한 처방을 찾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오래된 습관이니 언젠가 저절로 없어지겠지”	욕망은 저절로 죽지 않으니 지금 특별한 싸움을 시작하기
찔린 양심을 “나도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기억으로 잠재우기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죄를 죽이기
“이 죄 하나만은 봐주세요” 하며 예외 남겨 두기	남겨 둘 죄 없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들킬까 봐, 지옥 갈까 봐 이를 악물고 참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죄 자체를 미워하기

오웬의 여섯 징후는 '위험도 측정기'입니다. 측정기의 바늘이 빨간 칸에 있다고 해서 환자를 내쫓지는 않습니다. 더 집중해서 치료할 뿐입니다. 다만 오웬은 이 징후들로 위로를 얻으려는 것도 막습니다. 위로는 “다윗도 그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에서 와야 합니다.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꿈틀거리는 죄의 성향과 힘.

정욕(욕망)
하나님이 금하신 것 쪽으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속의 충동으로, 성적인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알고 판단하게 하는 마음의 재판석.

율법적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과 수치가 무서워서만 죄를 피하려는 마음.

상습성
오래 방치되어 마음에 뿌리내리고 익숙해져서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죄의 상태.

위선
신앙의 겉모습은 갖추었으나 특정한 죄 하나는 놓지 않기로 속으로 정해 둔 상태.

억제하는 은혜 / 새롭게 하는 은혜
죄가 밖으로 터지지 않게 막기만 하는 은혜와,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죄를 미워하게 하는 은혜.

심판적 완고함·징계
하나님이 이전의 죄와 나태를 바로잡으시려고 사람을 어떤 죄의 괴로움 아래 두시는 일.

✅ 이 편의 결론

- 죄를 죽이기 전에, 먼저 내 욕망의 위험도를 정직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 오래 굳어짐, 마음의 은밀한 변호(양심 달래기·죄에게 자비), 잦은 패배, 두려움만의 싸움, 징계, 치료 거부가 그 여섯 징후입니다.
- 죄를 이기는 동기와 힘은 율법의 위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옵니다.
-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진노이기 전에 큰 자비이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고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 징후는 판결문이 아니라 경보입니다. 흠으로 안심하지도 말고 흠으로 절망하지도 말며, 평안은 그리스도 안의 참된 증거 위에 세웁니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9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1)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